

Mark Philip Bradley

\* 신생국가의 탈식민화 및 독립은 냉전의 와중에서 전개된 것이 사실이나 냉전의 시각보다는 이들 신생국가의 자체의 엘리트의 각도에서도 조명되어야 한다.

\* 1919년에서 1962년 사이의 탈식민화 과정을 이 두 가지 시각, 즉 냉전과 지역 탈식민 엘리트라는 두 가지 시각에서 본다.

<Imperialism and its discontents>

\* 월슨의 민족자결주의와 러시아 혁명으로 식민지의 지도자들이 1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고무됨

\* 1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가 식민지의 독립에 관심을 보이지 않자 이들 지도자들은 러시아혁명으로 구원을 요청함

\* 이와 다른 또 하나의 노선은 자주적인 정책을 펼쳐 나가는 것임 -> 1919년 최초의 범아프리카 회의가 파리에서 개최됨 -> 가나의 앙크루마와 케냐의 케냐타가 주도함; 카리브해 지역과 미국의 대표도 포함됨(W.E.B Dubois 등)

\* 범이슬람 및 범아시아 운동도 일어남

\*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영불화란 등의 식민지였던 지역에서 반식민주의, 급진 정치적 민족주의 사상이 대두되면서 이러한 사상이 1920년대에 심화되고 경제불황을 겪으면서 1930년대에 강화되었다.

\* 아프리카의 경우 가나, 나이지리아, 케냐 등에서 반식민운동이 1920년대에 활발하게 전개되어 1925년 서아프리카 학생연맹이 창립됨

\* 이집트, 모로코, 베트남, 버마,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저항운동 1920년대와 1930년대에 지속됨

\* 베트남의 경우 새로운 지식인이나 자영농, 기술자 등이 중심이 되어 이전세대의 저항운동을 비판하면서 베트남 혁명청년기구가 호치민을 중심으로 설립됨(1925년) -> 베트남 공산당의 전신임

\* 그러나 전세계의 식민지를 걸쳐서 여전히 서구식민열강들이 힘이 강했고 저항세력인 민족운

동은 분열 혹은 분산되어 있었고, 제한된 동원능력만을 지니고 있었음

#### <World War II and the coming of the Cold War>

\*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아시아, 중동, 아프리카 등에서 반식민지 독립운동이 더욱 맹렬하게 전개되었고 동시에 이들 식민지를 정치, 사회, 경제적으로 바꾸려는 노력이 전개됨 -> 독립운동과 함께 사회변혁운동이 동시에 진행됨

\* 1945년 제5차 범아프리카회의가 개최됨 - 독립과 함께 독립이후의 완전한 정치, 사회, 경제적 해방을 주장함

\* 1945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도 이들 반식민지지도자들은 식민지의 즉각적인 독립을 보장하는 개념이나 단어가 유엔헌장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(받아들여지지 않음)  
- 민족자결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인권에 관한 주장이 받아들여졌고, 1948년 유엔 보편적 인권 선언초안에 반식민지 주장과 새로운 탈식민지세계에 관련된 새로운 용어들이 들어감 -> 강제규정은 없지만 탈식민지 운동과 사회변혁의 정당성을 제공하고 세계인의 관심을 집중시킨 효과는 있음

\* 탈식민과정은 내부분열과 열강의 간섭으로 이루어짐

\* 이때 유럽을 중심으로 냉전이 전개되면서 미소는 유럽에서의 경쟁에 치중함; 실제로 스탈린도 중국이나 베트남에 큰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음

\* 실제로 당시 미소는 탈식민지역(the global South)가 냉전 상황에서 그렇게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음

\* 미국 역시 탈식민지운동에 대해서 초기에 적극적으로 지지할 수만은 없었음  
- 미국은 영불 등의 식민지정책에 대해서는 이들 제국질서의 붕괴를 희망했고, 이들국가의 식민지 지배의 구시대성을 비판하고 있었지만, 동시에 급진적인 탈식민정권이 들어서는데 대해서는 우려를 포함함 -> 미국의 딜레마

\* 냉전상황에서 미소가 the global South에 개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베트남 등 탈식민국가는 자신들끼리 지역내에서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무기등을 상호제공하고 국제적인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함

\* 냉전의 논리가 있었다해도 제2차대전 종전 직후에는 이들 식민지의 민족주의적 독립운동에 관여하지 못함

#### <The Cold War in the global South>

\* 중국의 공산화와 한국전쟁이 바로 the global South를 냉전의 와중으로 몰아가는 계기가

되었음

- \* 중국은 북베트남 지원, 미국은 프랑스 지원
- \* 중국과 베트남 간에도 갈등이 생김 -> 이는 냉전의 논리가 탈식민운동의 지원으로 들어갈 때 복잡성과 긴장이 동반됨을 의미함(미국의 프랑스 지원도 마찬가지: 상호불신이 있음)
  - 베트남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인 간섭과 이에 대한 베트남의 불만
  - 미국이 인도차이나에서 새로운 패권국이 되려한다는 점에 대한 프랑스의 우려
- \* 중국은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베트남과의 이념적 유대감보다 중요했음 -> 인도차이나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함
- \* 1954년 베트남의 대불승리는 기타 지역의 독립운동과 국가변환노력을 고무시키고, 이와 동시에 미국 및 소련과 중국의 냉전관련 탈식민지 개입현상을 강화시킴
- \* 스탈린 사후 1956년의 소련공산당 당대회에서 후르시초프는 평화공존의 넓은 틀 안에서 비마르크스적인 민족해방운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공언하면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음
  - > 이를 통해 인도, 이집트 등을 자신의 편으로 편입시키고자 함
- \* 인도, 이집트, 인도네시아 등은 국가주도의 중공업중심 국가경제발전전략을 추구하는 소련 모델을 수용하고 소련의 경제적 지원을 정치적 지원보다 더 갈망함
  - 그러나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소련이 원하는 냉전의 블록정치에는 빠지지 않음
- \* the global South의 정치발전은 점점 미국에 의해서 냉전의 관점에서 조명받기 시작함
  - 정치발전모델의 수출
  - 경제적 지원
  - 공산주의의 확산 방지
- \* 미국의 모델은 그러나 소련의 모델과 비슷한 점도 있음: 봉건제의 타파(그러나 자유민주주의로 감)와 엘리트주도 강조
- \* 미국의 경제적 지원은 대만, 한국, 필리핀 등에서는 정치적 관계의 심화로 이어졌으나, 인도, 이집트, 인도네시아는 그렇지 못함
- \* 미국은 직접개입 혹은 CIA를 통해서 개입함 -> 이란의 모세데크 정권 붕괴; 남미 과테말라의 Arbenz정권 직접개입 축출(CIA 활용하여 혼두라스 통해서 침입) 등
- \* 남미는 전후 민주화 과정에 역전이 일어나서 군부정권이 지배하면서 노동에 대한 탄압이 등장함 -> Cold War terror

<Bandung and revolutionary nationalism>

- \* 1955년 반동회의 -> 냉전진영논리와 power politics 반대 -> 1961년 비동맹운동의 기원이 됨(인도, 인도네시아, 이집트, 가타, 유고, 알제리아) -> 3년후 50개 국가로 증대함
- \* 1952년 나세르의 군사 쿠데타와 1956년 수에즈 운하 국유화 -> 범아랍운동이 진행됨 -> 시리아와 통일아랍공화국 수립 -> 반제, 반시온투쟁을 진행함
- \* 미국은 아랍국가의 반제투쟁을 위협스럽게 바라보면서 이집트 친소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영불과 이스라엘의 수에즈 개입을 반대함; 아랍의 친미정권에 대해서 지원하며 레바논 내전에도 1958년 개입
- \* 특히 중국은 비동맹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폭력혁명을 수출하고 베트남의 호치민과 아프리카의 폭력투쟁을 지원함
- \* 스탈린 사후 중국이 소련의 수정주의를 비판하면서 이들 비동맹국가에 대한 중소의 지원은 경쟁적으로 증대됨

#### <Decolonization and the global South>

- \* 50-60년대는 전후 반식민독립의 물결이 휩쓴 시기
- \* 이 시기에 미소 그리고 중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냉전이 탈식민지역에 영향을 미침
- \* 그러나 동시에 이들 지역은 과거의 반제국주의, 반식민주의 등으로 냉전의 영향력을 제한하면서 초강대국의 영향력도 제한됨
- \* 가나 앙크루마의 범아프리카주의 -> 반동정신에 따른 비동맹운동 등으로 지속적으로 미소의 영향을 제한하면서 탈식민지역의 유대를 이어감
- \* 고딘디엠의 독자노선, 쿠바와 소련의 긴장, 중국의 마오이즘일변도에 대한 피수혜국의 불만 등이 지속되면서 냉전논리가 제3세계를 지배하지는 못함
- \* 또한 초국가적인 운동으로서의 식민지 저항의 모습(알제리아의 해방전선 등)은 이후 팔레스타인 디아스포라의 알 파타, 남아프리카의 아프리카민족전선 등에 영향을 미침

=====

- \* 범아시아 독립운동과 관련하여 일본 -> 중국 -> 한국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공부해 볼 필요가 있다.